

“불공정거래위원회로 이름 갈아라”

노조 경남지부,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재벌 퍼주기 규탄

“경남도민·거제시민 외침이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월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벌이고,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을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고 외쳤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자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경쟁당사자 여섯 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관계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결합이 산업 내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는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절차가 남은 나라는 유럽, 일본, 한국이다.

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두 조선사 기업결합이 조선산업 독과점형성과 고용위기, 조선산업 공급사슬과 지역경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결합 심사가 조

건부 승인으로 결론 나면 독점 해소를 이유로 기술이전이나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강용표 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해야 한다” 라면서 “한국 정부 공정위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가오는 9월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이곳에서 열겠다” 라고 문재인 정권과 공정위를 향해 경고했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위원회라고 이름을 갈아라” 라면서 “2년 동안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 이제야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헐값에 바치려고 한다” 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눈치 보지 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그래야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재벌 창업주 정주영이 어떤 사람인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납치하고 식칼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이다. 현중은 노조탄압을 답습하는 재벌이다” 라고 규정했다.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을 마친 노조·범시민대책위 대표단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7년 정주영-정몽준-정기선으로 이어지는 ‘3세 승계’를 위해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개편을 단행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7조 원~12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고통 전달을 강요했다.

금속노조, 지역사회와 밥·일·꿈 나누다

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 지원사업 협약... “공장 넘은 사회연대사업 키울 것”

금속노조가 지역사회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17일 ‘지역사회 연대 복지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평생교육 지원사업(진해장애인복지관) ▲소수 장애 유형 일자리 지원사업 ‘동료와 함께 하늘 바라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건강권 침해 취약계층 영양찬 지원사업(사회적 기업 날마다 소풍)을 선정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금속노조의 바깥, 공장을 넘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노동자, 더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고자 사회연대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 발걸음으로 시민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연대사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세 단체가 금속노조와 인연을 맺고 마음을 모아 장애인, 소외계층과 함께 잘살기 위한 기초사업을 시작한다”라며 “현장조합원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마음을 모아 내년에 더 많은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평생교육 지원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지부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칸타빌레 실내악단 ▲장애인연극단 햇빛촌 ▲생활스

포츠/악기·음악/도예·미술/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실내악단과 연극단은 2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좌는 130명의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은 일상에서 참으로 불편한 일이 많이 겪지만,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 안된다”라며 “조합원들이 힘들게 모아주시는 기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수 장애 유형 일자리 지원사업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부 연대기금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상담가를 교육한다. 협의회는 육성한 동료상담가를 정신장애인에게 파견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상담·교육을 한다. 협의회는 정신장애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 문제와 차별을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행동을 벌인다.

협의회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든든하리라 생각한다”라며 “뜻깊은 사업을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금속노조와 연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건강권 취약계층 영양찬 지원사업

‘날마다 소풍’은 지부 사회연대기금을 이용해 독거노인 50가구에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달 동안 주 2회 반찬 3종을 지원한다. 반찬은 국내산 제철 재료로 조리하며,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은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한다.

‘날마다 소풍’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기금을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노조 경남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은 매월 조합원들이 월 1,000원에서 2,000원씩 모금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해 소외계층,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농민, 문화예술인, 여성 등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매년 집단교섭과 사업장 교섭에서 금속노조 소속 사업주에게 지부가 모은 동일한 액수의 사회연대기금 모금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지부 집단교섭에서 사회연대기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는 등 더욱 큰 사회연대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한편, 김용균 재단 대표인 김미숙 동지가 이날 협약식을 찾아 인사를 나눴다. 경남지부는 올해부터 김용균 재단에 월 20만 원의 후원금을 사회연대사업기금으로 보내고 있다.